

2024 년 봄 신학시험

[Winter 2024 Theology Exam]

제 1 부: 개혁 신앙적 고백 유산

[Section I: Reformed Confessional Heritage]

임마누엘 장로교회 목사가십니다. 당신은 정기적으로 십대들을 위한 성경공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수업에서는 요한복음 1 장 1 절을 토론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NRSV).

학생들에게 그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어보면 다음과 같은 대답을 듣게 됩니다.

[You are the pastor of Emmanuel Presbyterian Church. You regularly teach a Bible study for teens. Today the class is discussing John 1:1: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NRSV). You ask the students what that verse might mean, and you receive the following responses:]

클로이: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므로 성경의 말씀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머리 속에
[Cole:] 기록되었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것은 그들을 통해 채널을 보낼 적절한 사람들을 찾는 것뿐이었습니다.

[Of course the Word of God is the Bible, so I assume that means that the words of the Bible were written in God’s head from the beginning. All God was waiting for was to find the right people to channel them through.]

에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은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복음 그 자체를 언급하고
[Erin:]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기쁜 소식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뜻입니다.

[No, that’s not right. John’s referring to the gospel itself, not the words of the Bible. It means that the good news of Jesus’s coming was God’s idea from the very beginning.]

무쿠이: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Mukui:]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뿐 아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과 말씀은 같은 것입니다.

[I thought Jesus was the Word of God. Isn’t that why John doesn’t just say the

Word was with God, but that the Word was God? God and the Word are the same thing.]

필수 응답: (이 부분의 응답은 총 1,200 단어를 넘지 말아야 한다.

[REQUIRED RESPONSES: (*Total responses in this Section not to exceed 1,200 words.*)]

1.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개혁주의 이해를 논하는 에세이를 쓰십시오. 에세이에서는 고백서에 있는 세(3) 개의 서로 다른 문서 각각에서 적어도 하나(1) 인용(예: 0.000)을 식별하고 토론해야 합니다.

[Write an essay discussing a Reformed understanding of the **Word of God**. In the essay, you must identify and discuss at least one (1) citation (e.g., 0.000) from each of three (3) different documents in *The Book of Confessions*.]

2. 필수 응답 1 의 에세이를 바탕으로 클로이, 에린 및 무쿠이에게 직접 응답하십시오.
[Building on the essay in Required Response 1, respond directly to Cole, Erin, and Mukui.]

제 2 부: 기독교 교리의 구성적 진술

[Section II: Constructive Statement of Christian Doctrine]

당신은 올드 오크 장로교회의 목사이며 중학생을 위한 주일학교 수업을 이끌고 있습니다.

창세기 1 장 26~27 절에 대한 토론에서 다음과 같은 대화가 이어집니다:

[You are the pastor at Old Oak Presbyterian Church and lead a Sunday school class for middle schoolers. In a discussion of Genesis 1:26-27, the following conversation ensues:]

안나: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고 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Anna:] 모습인지 모르고, 우리의 모습도 다 똑같지 않습니다.

[Why does it say we are made “in the image of God”? We don’t know what God looks like, and we don’t all look the same.]

사피라: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Safira:] 나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Some people don’t exactly act like they are related to God. How can terrible people be made in the image of God?]

제인: 성경 어디선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지

[Zane:] 않습니까?

[Doesn’t the Bible say somewhere that Jesus is the image of God, since he’s the Son of God?]

필수 응답: (이 섹션의 총 응답은 1,200 단어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REQUIRED

RESPONSES: (Total responses in this Section not to exceed 1,200 words.)]

1.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개혁주의 이해를 논하는 에세이를 쓰십시오. 에세이에서는 다음 자료 중 세 가지(3)를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성경, 고전 신학(1900 년 이전 출처), 현대 신학(1900 년 이후 출처). 창세기 1:26-27 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필요한 자원 중 하나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Write an essay discussing a Reformed understanding of **the image of God**. In the essay, you must use **all three** (3) of the following resources: the Scriptures, classical theology (sources before 1900), modern theology (sources since 1900). Genesis 1:26-27 may be used, but it will not count as one of the required resources.]

2. 필수 응답 1 의 에세이를 바탕으로 안나, 사피라, 제인에게 직접 응답하세요

[Building on the essay in Required Response 1, respond directly to Anna, Safira, and Zane.]

제 3 부: 사역에 적용

[Section III: Application to Ministry]

당신은 제 3 장로교회 담임목사로 섬기시며 용서라는 주제로 성인반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의 주제는 더 넓은 사회에서 용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대화가 이어집니다.

[You serve as pastor of Third Presbyterian Church and are teaching an adult class on the theme of forgiveness. Today's topic is practicing forgiveness in the broader society. The following conversation ensues:]

헬무쓰: 나는 사회적 실천으로서 용서라는 개념을 좋아합니다! 용서는 우리의 관계에만
[Helmuth:]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이 우리에게 상처를 입혔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I love the idea of forgiveness as a social practice! Forgiveness isn't just relevant to our relationships. We can forgive people who don't even know they've hurt us.]

션: 그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입혔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그들은 회개할 수 없습니다.
[Sean:]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도 있을 수 없습니다.

[If they don't know they've hurt us, they can't repent; and if there is no repentance, there can be no forgiveness.]

미도리: 용서는 화해로 이어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Midori:] [I don't think forgiveness means anything unless it leads to reconciliation.]

필수 응답: (이 부분의 응답은 총 1,200 단어를 넘지 말아야 한다.) [REQUIRED

RESPONSES: (Total responses in this Section not to exceed 1,200 words.)]

1. 용서에 대한 개혁주의적 이해를 논하는 에세이를 쓰십시오. 에세이에서는 다음 자료 중 최소한 두(2) 가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성경, 고전 신학(1,900 년 이전 출처), 현대 신학(1,900 년 이후 출처).

[Write an essay discussing a Reformed understanding of **forgiveness**. In the essay, you must use at least two (2) of the following resources: the Scriptures, classical theology (sources before 1900), modern theology (sources since 1900).]

2. 필수 응답 1 의 에세이를 바탕으로 세션에 응답하세요. 헬무쓰, 션, 미도리 의견을 다루어야 합니다.

[Building on the essay in Required Response 1, respond to the session. You must address the comments of Helmuth, Sean, and Midori.]